

현장의 질문, 특별한 성과로 이어지다... 질병관리청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 개최

- ‘희귀질환자 특수식 지원’ 등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직원 격려
- 국민 중심 적극행정 문화 확산 기대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 청장 임승관)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기관 내 적극행정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7월 13일(월)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포상은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포상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질병청은 1차 국민투표로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2차로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자체 심사위원회의의 평가를 거쳐 총 7명을 특별성과 포상금 대상자로 선정했다.

주요 성과 사례로는 ▲희귀질환자의 특수식 구매 지원체계 구축(김지영 과장, 조우미 서기관, 배병식 사무관, 김지민 주무관), ▲SFTS 치료제 사용 범위 확대(김도형 주무관, 강민주 주무관), ▲선박 검역분류 디지털 시스템 개발(정소영 주무관) 등이 선정 됐다.

대상으로 선정된 희귀질환자 특수식 지원 사례는 희귀질환 환자 및 가족들의 특수식 구매 과정에서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당원병 환자의 특수옥수수전분 지원’ 및 ‘선천성 대사이상 환자의 저단백 즉석밥 구매지원체계’를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불편 사항에 대해 환자 단체 및 민간 기업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신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희귀질환자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가상사례 : 특수 옥수수전분 지원 전후 환자 가족의 변화 】

서울시에 거주하는 7세 당원병 환자 A군은 지금까지 매일 밤 부모가 두세 차례 깨워 일반 옥수수전분을 복용해야 했다. 아이는 깊은 잠에서 자주 깨어나 피곤해했고, 부모 역시 수년간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특수 옥수수 전분을 복용하면 7~8시간 동안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아이들은 수면 시간이 늘어나고 부모도 돌봄 부담에서 한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특히, 한정된 수요로 시장성이 낮은 희귀질환 특수식(저단백 즉석밥)의 공급 및 가격 불안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 단체 및 생산 업체와의 민관협약*을 통해 특수식 추가 물량(최대 10만개) 생산 및 전용 유통경로를 구축하고 안정적 구매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특수식이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연간 환자 1인당 약 650만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 질병관리청-(주)CJ제일제당-(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 가상사례 : 저단백 즉석밥 구매지원체계에 따른 개선 사례 】

- (기존) 선천성대사이상희귀질환을 갖고 있는 A씨(19세 이상)는 저단백 즉석밥이 치료제만큼 중요하나, 저단백 즉석밥(약 1,700원)을 구매하기 위하여 6개월째 매일 알람을 설정하여 인터넷 접속하여 구매를 시도하고 있지만, 품절이라 살 수 없었다. 또한 00온라인몰에서 1개에 만원이 넘는 단가로 비싸게 팔아 결국 일본 직구 상품(약 5,000원)을 구매하였다.
- (향후) 매 분기별 '희귀질환 헬프라인'에 접속하여 3개월치 원하는 물량을 구매 신청하면 해당 물량이 익월에 집으로 배송됨에 따라, 저단백 즉석밥을 불안 없이 일정한 단가(1,700원)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김지영 과장은 희귀질환 지원 확대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아 '제6회 적극행정 유공포상'을 통해 녹조근정훈장을 수여(7.7) 받았다.

최우수상으로는 SFTS 치료제 사용 범위 확대 사례가 선정되었다. 치명률이 높으나(약 18%),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의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에볼라 치료제로 비축 중인 아비간에 대한 활용 요청이 있었고, 식약처와의 협의*를 거쳐 비축 중인 에볼라 치료제(아비간)의 사용기간 연장 및 사용범위 확대를 이끌었다.

* 해외(일본)에서 아비간을 SFTS 치료제로 승인한 현황 등을 근거로 대응

식약처 승인을 받기 위해 식약처와 치료제 제조사에 직접 연락하여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주고 받는 과정을 통해 사용기간 연장 및 사용범위 확대 승인을 받은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제안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존 비축 의약품을 새로운 감염병 대응 자원으로 활용한 적극행정 사례로, SFTS 환자 치료 지원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약 45억원의 신규 구매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우수상으로는 ‘선박 검역분류 디지털 시스템 자체 개발 사례’가 선정 되었다. 그간 항만에서는 해운대리점 등 민원인이 선박 입항 신고 시 승선 검역 여부 등 검역 분류(승선검역, 서류검역, 조사생략)에 대한 자체 판단이 어려워 국립검역소를 통한 유선 문의를 반복하던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실무를 담당하던 검역관이 해운대리점이 직접 검역 유형을 판단할 수 있는 ‘검역분류 디지털 시스템’을 자체 개발·도입하여 현장 중심의 정부혁신을 실현하였다. 시스템 전문가도 아닌 검역관이 코딩 등 관련 기술들을 직접 학습하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50여 가지 다양한 조건을 단 9가지 문항으로 간소화하는 등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해당 시스템은 정비를 거쳐 앞으로 전국 항만 검역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수상자들을 격려하며, “현장의 질문을 경청하고, 이를 통해 답을 찾으려 헌신해 온 직원들의 노력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한 성과로 빛을 발하게 되어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국민을 위한 창의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관장으로서 아낌없는 신뢰와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 현장사진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행정법무담당관	책임자	과 장	유미란	(043-719-7680)
		담당자	사무관	조형주	(043-719-7684)
			주무관	함정인	(043-719-7687)



건강한 동행,
국민과 함께하는 질병관리청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



특별성과포상금 수상자 단체사진